

1위 세플러 vs 2위 매킬로이... '그린재킷' 놓고 자존심 대결

'명인열전' 마스터스 10일 개막...타이거 우즈 불참 확정
세플러, 타이틀 방어 관심...한국 임성재·김주형 등 출격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남자 골프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 72·7555야드)에서 막을

린다. 올해로 89번째를 맞이하는 마스터스는 메이저 대회 중 유일하게 매년 같은 코스에서 열리고, 그곳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문 골프장인 오거스타 내셔널이라는 점이 특별함을 더하는 대회다.

출전 선수 수도 메이저 대회 중 가장 적어 올해에는 96명이 초대장을 받았다. 97명이 나섰던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으로, 그 사이에 87~93명이 출전한 바 있다.

다만 2000년 우승자 비제이 싱(피지)이 부상으로 개막을 사흘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올해 실제 경기를 치르는 선수는 95명이다.

총상금 규모는 대회 기간 확정된다. 지난해엔 2000만달러(약 293억원), 2023년엔 1800만달러였다.

지난달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아 수술받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출전하지 않는 올해 대회에선 현재 세계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우승 후보 1순위로 꼽

힌다. 2022년과 지난해 마스터스를 제패한 셰플러는 부동의 세계랭킹 1위를 질주하는 가운데 올해 첫 우승을 첫 메이저 대회에서 노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셰플러가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다면 마스터스 역대 9번째로 '3회 이상 우승자' 대열에 합류한다.

'전설'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가장 많은 6차례(1963·1965·1966·1972·1975·1986년) 마스터스 정상에 올랐고, 우즈가 5회(1997·2001·2002·2005·2019년), 아널드 파머(미국)가 4회(1958·1960·1962·1964년)로 뒤를 잇는다.

여기에 필 미컬슨(미국)을 비롯해 5명이 3회 우승을 달성했다.

현재 세계랭킹 2위이자 이번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승을 올리며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셰플러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다.

PGA 투어 통산 28승을 수확하고 현재 세계랭킹 2위에 오른 매킬로이는 메이저 대회 중 US오픈(2011년), PGA 챔피언십(2012·2014년), 디오픈(2014년)을 제패했다.

이제 마스터스에서 촉베를 들면 매킬로이는 메이저 대회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룬다.

그는 200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마스터스에 16차례 출전해 2022년 셰플러에 이어 준우승한 것



임성재

이 최고 성적이며, 지난해엔 공동 2위로 마쳤다.

2011년 3라운드까지 공동 2위에 4타 앞선 선두를 달리다가 최종 라운드 후반 난조에 빠지며 80타를 쳐 공동 15위로 떨어지는 등 유독 마스터스 우승과 인연이 없던 매킬로이가 11년 가까운 메이저 우승 갈증을 오거스타에서 씻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셰플러와 매킬로이의 '양강 구도'가 대체로 평가



세플러

받는 가운데 세계랭킹 3위의 잰더 쇼플리와 4위의 폴린 모리카와(이상 미국), 2023년 이 대회 챔피언 윤 람(스페인)도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들이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세계랭킹 24위)와 김주형(31위), 안병훈(34위)이 출전한다.

임성재는 2020년 우승자 더스틴 존슨(미국)에 이어 2위에 올라 한국 선수 마스터스 최고 성적을



매킬로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초반 이후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임성재로선 반동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대회다. 임성재는 최근 PGA 투어 5개 대회 중 두 차례 컷 탈락, 두 차례 60위대 순위에 머물렀다.

올 시즌 페덱스컵 랭킹 50~60위권에 그친 김주형과 안병훈도 메이저 대회 선전으로 순위가 전환을 꿈꾼다. /연합뉴스



신유빈

탁구 신유빈, 마카오 월드컵 출전...중국 톱랭커 상대 설욕전

장우진·우준성·이은혜 등 참가

한국 탁구 여자 에이스 신유빈(대한항공)과 남자 간판 장우진(세아)이 올림픽, 세계선수권과 함께 3대 메이저 대회로 꼽히는 2025 국제탁구연맹(ITTF) 남녀 월드컵에서 만리장성 허물기에 다시 도전한다.

신유빈과 장우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마카오에서 열리는 남녀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 12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월드컵에도 오상은 감독과 석은미 감독이 이끄는 남녀 대표팀이 출전한다.

신유빈, 장우진 외에 오준성(수성 방송통신고), 조대성(삼성생명), 안재현(한국거래소·이상 남자), 이은혜(대한항공), 서효원(한국마사회),

김나영(포스코인터내셔널·이상 여자)이 참가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우리나라 선수 중 19세의 남자 기대주 오준성이 이달 초 세계 정상급 중국 선수들이 빠진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챌린지에서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WTT 시리즈 메이저급 대회에선 철옹성을 구축한 중국의 벽에 막혔다.

세계랭킹 10위인 신유빈은 특히 중국 선수들에게 약점을 보였다.

신유빈은 지난 2월 WTT 싱가포르 스매시 16강에서 중국의 1.5진급 선수인 허주오자(세계 19위)에게 0-3으로 완패했다.

이어 아시안컵 16강에서 왕이다(세계 3위)에게 2-3, 지난달 WTT 챔피언스 총정 16강에서 천싱

통(세계 4위)에게 0-3으로 각각 패배했다.

또 지난 6일 끝난 WTT 챔피언스 인천에서도 8강 상대였던 왕이다에게 또 1-4로 무릎을 꿇는 등 올 시즌 중국 선수와 4차례 맞대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이번 마카오 월드컵엔 중국의 톱랭커들이 총출동한다. 작년 여자부 디펜딩 챔피언인 세계 1위 쑨잉사를 비롯해 2위 왕만위, 3위 왕이다, 4위 천싱 등이 출사표를 올렸다.

남자부에도 올해 싱가포르 스매시 챔피언인 세계 1위 린스동을 비롯해 아시안컵 우승자 왕추친(2위), 일본의 간판 하리모토 도모카즈(3위) 등이 출전자에 포함됐다.

이번 대회에선 남녀 각 48명이 16개 그룹으로 나눠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무안군청,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

무안군청 검도팀이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남자부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경남 거창 다목적체육관에서 최근 열린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무안군청검도팀이 남자부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3위를 기록했다.

단체전 16강에서 대구 달서구청을 3-2로 꺾은 무안군청은 8강에서 구미시청과 접전 끝에 김한변의 손목치기 득점으로 2-1 승리했다.

4강에서 4-3으로 전북체육회를 제치고 결승에 오른 무안군청은 남양주시청을 4-1로 누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주장 유하늘(6단)은 개인전(6단부 이상)에서 3위에 올랐다. 유하늘은 주연우(달서구청)를 상대로 머리치기 2득점으로 2-0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 조진용(용인시청)과의 연장전 끝에 0-1



무안군청 검도팀이 경남 거창에서 열린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남자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 체육회 제공>

로 패해 3위를 기록했다.

무안군청은 지난 2월 남원에서 열린 2025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3단, 김병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유일 실업 배구팀 비오신코리아, 흥천대회 준우승

광주지역 유일한 실업 배구팀 비오신코리아가 실업배구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비오신코리아는 지난 6일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 열린 '2025 한국 실업배구연맹전 흥천대회' 결승에서 안오연에 0-3으로 지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2020년 9월 창단한 비오신코리아는 광주 유일 실업 배구팀으로 21년부터 4년 연속 광주대표로 전국대회에 참가했다. 또 지난 2021년과 2022

년 신협중앙회장배 한국실업배구연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실업배구 시즌 첫 대결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남자1부(국군체육부대·부산시체육회·영천시체육회·현대제철·화성시청), 남자2부(비오신코리아·대전시체육회·전라북도배구협회·엔오엔), 여자부(대구시청·수원특례시·양산시청·포항시체육회) 13개 팀이 출전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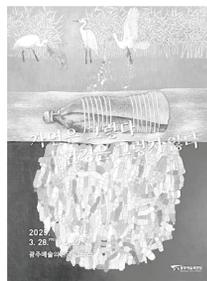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기획공연 포커스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

일시 : 2025-04-17(목)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 : 추송정 개인전

일시 : 2025-3-28(금)~2025-4-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